

(07330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, 농협재단빌딩 10층 대표전화 02)368-3600 팩스 02)368-3700

문서번호 MKT(ST)2210-519  
시행일자 2022-10-11  
수신 수신처 참조  
발신 NH-Amundi자산운용(주) 대표이사  
제목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 포함) 및 신탁계약서 변경 안내

1. 귀 사(행)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다음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 포함) 및 신탁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가. 펀드명 및 변경내역

펀드명	변경내역	약관변경
NH-Amundi 성장 중소형주20 증권투자신탁[채권혼합]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갱신</li> <li>- 변동성(표준편차) 변경사항 반영 (4.50% → 4.47%, 5등급 유지)</li> <li>- 자본시장법,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등 개정사항 반영 (금전차입 제한 예외 조항 추가 등)</li> <li>-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발생내역 추가</li> <li>- 적용 법률 변경, 용어 및 문구 변경 등 (재무상태표 등)</li> </ul>	○
NH-Amundi 성장 중소형주40 증권투자신탁[채권혼합]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갱신</li> <li>- 변동성(표준편차) 변경사항 반영 (9.08% → 8.93%, 4등급 유지)</li> <li>- 자본시장법,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등 개정사항 반영 (금전차입 제한 예외 조항 추가 등)</li> <li>-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발생내역 추가</li> <li>- 적용 법률 변경, 용어 및 문구 변경 등 (재무상태표 등)</li> </ul>	○
NH-Amundi 필승 코리아 증권투자신탁[주식]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갱신</li> <li>- 설정 후 3년 경과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 및 변동성(표준편차) 반영(23.48%, 2등급 유지)</li> <li>- 자본시장법,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등 개정사항 반영 (금전차입 제한 예외 조항 추가 등)</li> <li>-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발생내역 추가</li> <li>- 적용 법률 변경, 용어 및 문구 변경 등 (재무상태표 등)</li> </ul>	○

펀드명	변경내역	약관변경
NH-Amundi 4차산업혁명 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-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갱신 - 변동성(표준편차) 변경사항 반영 (23.97% → 24.83%, 2등급 유지) - 자본시장법,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등 개정사항 반영 (금전차입 제한 예외 조항 추가 등) -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발생내역 추가 - 적용 법률 변경, 용어 및 문구 변경 등 (재무상태표 등)	○
NH-Amundi 4차산업혁명 증권자투자신탁(주식)	-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갱신 - 변동성(표준편차) 변경사항 반영 (23.19% → 23.75%, 2등급 유지) - 자본시장법,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등 개정사항 반영 (금전차입 제한 예외 조항 추가 등) -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발생내역 추가 - 적용 법률 변경, 용어 및 문구 변경 등 (재무상태표 등)	○

나. 효력발생일 : 2022년 10월 14일 (금)

다. 업무 참고사항

- 수시공시 필요

① 판매사 홈페이지 공시 ② 투자자에게 이메일 송부 ③ 영업점 게시

※ 잔고 유무 관계없이 예탁결제원 판매등록 된 판매사에 한하여 안내드리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.

**NH-Amundi**자산운용 대표이사



수신처: NH농협은행, NH선물, NH투자증권, DB금융투자, IBK기업은행, IBK투자증권, KB증권, SC제일은행, SK증권, 경남은행, 광주은행, 교보생명, 교보증권, 대구은행, 대신증권, 메리츠증권, 미래에셋증권, 부산은행, 삼성생명, 삼성증권, 삼성화재, 수협은행, 신영증권, 신한금융투자, 우리은행, 유안타증권, 유진투자증권, 전북은행, 제주은행, 키움증권, 하나은행, 하나증권, 하이투자증권, 한국투자증권, 한국포스증권, 한화생명, 한화투자증권, 현대차증권